

『書誌學研究』 게재 불교서지학 논문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Buddhist Bibliograph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 Bibliography*

金 聖 洙 (Kim, Sung-Soo)*

황 윤 성 (Hwang, Youn-Seong)**

◁ 목 차 ▷

- | | |
|------------------|---------------------|
| 1. 緒 論 | 3.5 密教經典 관련 연구 |
| 2. 大藏經 관련 연구 | 3.6 其他佛書 관련 연구 |
| 2.1 正藏 관련 연구 | 4.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 |
| 2.2 諸宗教藏 관련 연구 | 4.1 「無垢淨光經」 관련 연구 |
| 3. 單位佛書 관련 연구 | 4.2 「直指」 관련 연구 |
| 3.1 개개 佛經 관련 연구 | 4.3 「南明頌證道歌」 관련 연구 |
| 3.2 寫經 관련 연구 | 5. 結 論 |
| 3.3 寺刹刊行本 관련 연구 | <참고문헌> |
| 3.4 禪書 관련 연구 | |

< 초 록 >

이 논문은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부터 제70집(2017.6)까지에 게재된 '229편'의 불교서지학 논문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大藏經 관련 연구 62편'에서는, 大藏經과 諸宗教藏에 관한 서지학적 基盤研究의 성과가 축적되었다고 분석되었다. 2) '單位佛書 관련 연구 119편'에서는, 形態書誌學과 原文書誌學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면서, 佛書 간행의 正體性 및 여러 현상들을 연구하였다고 분석되었다. 3)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無垢淨光經」·「直指」·「南明頌證道歌」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목판인쇄 및 '金屬活字의 鑄造法' 등 서지학 本然의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파악하였다. 4) 통시적으로는, ① 창간호부터 20세기말까지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한국서지학 연구에서 개괄적이고 필수적인 佛書 및 대장경 相關 연구부터 시도되면서 불교서지학의 地평을 차츰 넓혀 나갔다고 분석되었다. ② 21세기 이후의 중·후기 연구에서는, '개개 佛經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佛經의 口訣·寫經·禪書·密教經典·기타 佛書' 등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들을 구축하였다고 분석되었다.

要語: 『서지학연구』, 한국서지학회, 불교서지학, 연구동향, 佛書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제1저자)

**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연구조교(hgsn121@naver.com) (공동저자)

접수일: 2017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21일
서지학연구, 제72집, 71-98,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7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229 papers of 'Buddhist bibliography' published i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 Bibliography* (*Seojihak Yeongu*) from its first issue (1986) to volume 70 (2017.6).

1) It is evaluated that 62 papers on *Tripitaka* and *Jejonggyojang* established firmly a bibliographical foundation in studying *Tripitaka* and *Jejonggyojang*. 2) 119 papers on various individual Buddhist literatures and temple-editions are evaluated to investigate various aspects and bibliographical identity of Buddhist publications, especially in the field of analytical bibliography and textual bibliography. 3) It can be evaluated that researches on the culture of printing with wood blocks and metal movable types in Korea and the world with a focus on *Mugujeonggwanggyeong · Jikji · Nammyongsongjeungdoga*, accomplished a great academic achievement in purely bibliographical subjects, especially including the technology of casting individual metal movable types, respectively used for printing *Jikji* and *Nammyongsongjeungdoga*. 4) In diachronic terms, ① the early researche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issues of the late 20th century began with the general and essential investig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nd *Tripitaka* in Korean bibliographical study and expanded the horizon of Buddhism bibliography. ② the mid- and late researches since the 21st century have actively dealt with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studies on various individual Buddhist scriptures' and 'gugyeol' and transcription of Buddhist scriptures, Zen writings, scriptures of esoteric Buddhism, and other Buddhist scriptures, and achieve a remarkable outcome from lasting and various perspectives.

Key words: *Seojihak Yeongu*(書誌學研究),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 Bibliography(韓國書誌學會誌),
Buddhist bibliography(佛教書誌學), research trends, Buddhist scriptures

1. 緒論

<韓國書誌學會>는 한국의 古書와 古文獻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전반을 주로 연구하는 학회로서, 기존 서지학계의 兩大學會였던 <서지학회>와 <한국서지학회>가 2013년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국서지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즉, 본 학회는 2014년 1월부터 統合 재출범하였고, 매년 春秋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學會誌 ‘書誌學研究」第57輯(2014.3)’부터는 년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는 版面이 확대된¹⁾ 書誌誌를 發刊하고 있다.²⁾

韓國書誌學은 韓國學 관련 모든 주제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書誌情報를 제공하여 주는 기초학문이라 할 수 있다.³⁾ 그 중 佛教類 典籍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불교문화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국서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서지학회>의 공식적인 학술지인 「書誌學研究」創刊號(1986)부터 第70輯(2017.6)까지에 게재된 ‘佛教書誌學 논문’⁴⁾들은 ‘불교문헌 중 과연 어떤 핵심 주제 및 觀點으로

1) 「書誌學研究」의 版面은 창간호(1986)부터 전통적인 학회지의 사이즈인 ‘菊版’ 크기를 지속적으로 固守해 왔으나,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책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17년 3월에 발간된 第69輯(2017.3)부터 그 版面을 ‘4·6배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2) 기존의 <서지학회>는 1985년 10월에 發足(初代 會長: 심우준 교수)하여 學會誌 「書誌學研究」를 1986년 9월에 創刊號를 발행한 학회로, 초기에는 年間으로 학회지를 발행하였다. <서지학회>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내에서 서지학을 전공하는 교수들(理事: ‘중앙대 심우준, 연세대 정형우, 성균관대 천혜봉, 충남대 윤병태, 경기대 박상균’ 교수. 감사: 김치우·이희재 교수. 총무간사: 배현숙 교수. 顧問: 金斗鍾·趙明基·閔泳珪(당시 서지학회 元老). 등)이 의기투합하여 <서지학회>를 결성하였고, 書誌學계의 대표적인 전문학술지인 「書誌學研究」를 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6월에 「書誌學研究」第13輯의 발행부터는 年2회 학회지를 倍增 發刊하는 학회로 발전하였고, 2004년 6월에 발행한 「書誌學研究」第27輯부터는 年3회로 학회지를 增刊하는 발돋움의 모습을 보였으며, 2013년에 기존의 <한국서지학회>와 <서지학회>가 통합되면서, 2014년부터 통합 재출범하는 學會의 명칭은 ‘韓國書誌學會’로 하고, 발행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書誌學研究」로 결정하였다.

한편, 기존의 <한국서지학회>는 해방 이후 1947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이재욱 및 부관장 박봉석의 발의로, 한국 최초의 <한국서지학회>로 발기되었으나 학술지 발간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1959년 10월 국립도서관 김상필 관장에 의하여 다시 <한국서지학회>가 發起되고, 1960년에 학술지 「書誌」가 발간되었으나 ‘통권 3호’로 막을 내렸다(한미경, “「書誌學研究」의 연구동향 분석,” 「書誌學研究」第65輯(2016. 3), 121.). 1968년 9월 당시 도서관학자들과 古書同友會 회원 등에 의하여 <한국서지학회>가 창립되고 학술지 「書誌學」이 간행되었으나, 1987년 1월 “제7호”까지만 발간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서지학회>는 1990년 6월에 「季刊 書誌學報」를 創刊號(당시 회장: 임창순)를 발행하면서 재출범하였고, 2012년 6월 「書誌學報」第39號를 발간한 이후 <한국서지학회>는 <서지학회>와 통합되었다.

3) 즉, 한국서지학의 분류 및 그 연구영역은 ‘판본학·목록학·교수학’ 등으로 3大別할 수 있다. ① 形態書誌學(板本學)은 해당 文獻(圖書: 筆寫 및 印刷 도서 등)에 대한 물리적인 형태와 특징 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그 자료의 刊寫 성격과 시기 등을 고증하고 그 優劣을 식별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연구·기술하는 학문이다. ② 體系書誌學(目錄學: 열거서지학, 주제서지학 포함)은 해당 주제 관련 자료들을 시대별·국가별·歷朝別·주제별·類別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 학술의 源流와 隆替 및 학술의 추이를 기술하거나 이미 편성된 목록·서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③ 原文書誌學(校讎學·校勘學)은 해당 자료의 原本(正本)의 문장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문자 및 篇卷의 異同을 對校하고, 本文의 增刪을 고증하여, 그 역사와 전래 등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4) 본고에서는 ‘불교문헌 관련 서지학적인 연구’를 ‘佛教書誌學 論文’이라는 개념으로 표기하였다.

그 연구에 주력하였을까?’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세부 주제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부터 ‘제70집’(2017.6)까지 30년 이상에 걸쳐 게재된 총 논문 편수는 ‘828편’에 이른다. 그 중 불교서지학 논문은 무려 ‘229편’에 도달함으로써, 본 학회지에 수록된 총 논문편수의 약 28%를 점유하고 있는 불교서지학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논문에 대한 분석 방법은 여러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⁵⁾ 본고에서는 본 학회지에 수록된 229편의 불교서지학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각 연구는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연구(주장)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연구의 觀點(목적)을 단일주제의 要語(key word)로 선정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위 229편의 개개 논문들에 대하여 핵심 요어를 각각 선정하여 본 결과, 이들 요어들은 大分流의 개념으로는 ‘大藏經, 單位佛書, 韓國印刷文化’라는 핵심주제로 3大別할 수 있었다. 각 大分流 아래에서는 다시 2~6개의 中分流 개념으로 細分이 가능하였다. 즉 ① 大藏經: ① 八萬大藏經 및 鎭兵大藏經⁶⁾ · ② 諸宗教藏. 2) 單位佛書: ① 佛經 · ② 寫經 · ③ 寺刹本 · ④ 禪書 · ⑤ 密教經典 · ⑥ 其他佛書. 3) 韓國印刷文化: ① 「無垢淨光經」 · ② 「直指」 · ③ 「南明頌證道歌」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3대 구분 및 細分에 의하여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불교서지학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⁷⁾

2. 大藏經 관련 연구

본 章에서는 大藏經 관련 논문들을 群集하고, 이를 다시 ① ‘한국대장경의 始初를 이룬 <鎭兵大藏經(高麗初雕大藏經: 正藏)>의 印本’과 ‘목판대장경 중 世界唯一의 現存 經板인 <八萬大藏經(高麗再雕大藏經: 正藏)>’에 관한 연구논문을 ‘正藏 관련 연구’의 개념으로 그룹화 하고, ②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力作이라 할 수 있는 諸宗教藏(續藏)에 관한 연구논문들 ‘諸宗教藏 관련

5) 그 분석의 방법으로, 불교서지학적인 개개 논문들에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들을 群集하고 이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문의 편수가 229편에 이르는 방대한 량이고, 각 논문에서 제시하는 4~5개 이상의 다양한 키워드들을 대하여 그 비중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에 동일비중의 데이터로 취급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자칫 해당 논문들이 다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연구목적과 相異한 데이터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다. 즉, 핵심주제 키워드 1개와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나머지 키워드 4개를 한꺼번에 데이터처리를 할 경우에, 그 핵심주제의 비중은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핵심주제 파악이 불가능한 맹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의도하는, 각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목적(관점)으로 하는 핵심(point) 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단일주제의 要語를 선정하는 방법론이 보다 정확성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6) 고려 高宗은, 『高麗史』 第129卷, 列傳第42, 崔忠獻條(高宗41年條)에서, 현재 우리가 ‘初雕大藏經’이라 지칭하는 대장경에 대하여, “鎭兵大藏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兵)을 진압(鎭)한 대장경’이라고 하여 특별히 지칭하였다(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2012. 2.), 263-268. 參照).

7) 본 연구는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부터 제70집(2017.6.)에 게재된 불교서지학 논문에 局限하여 분석한 연구이므로, 석사학위논문이나 그밖의 학회지 등에 수록된 불교서지학 관련 논문들은 제외함을 여기에 밝혀 둔다.

연구'의 개념으로 細分하여 정리하고, 이들을 각각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正藏 관련 연구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正藏 관련 연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⁸⁾ 41편으로 집계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본 학회지 게재 불교서지학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마도 이는, 고려 13세기에 완성된 <팔만대장경>의 經板이 현재까지 海印寺에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고, 또한 근래에 '일본 南禪寺에 소장되어 있는 <鎮兵大藏經>의 印本들'⁹⁾이 2010년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의하여 조사·공개된 결과에 기인한 듯하다.

이제 <표 1>에 제시된 개개 연구들에 관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학회지의 창간과 더불어 그 초창기인 2000년까지의 대장경 관련 연구는, 그 목록과 관련한 『대장목록』의 분류체계(1986.9)¹⁰⁾와 팔만대장경의 교정기록인 '校正別錄 연구'(1986.9)를 始發로 하여, '초조대장경의 구성체계'(1995.12, 1996.12)와 '대장경의 번역·해석·분류'(1998.6) 등 대장경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 등이 수행됨으로써, <서지학회> 초창기 10여 년 이상에 걸쳐 제20집까지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고려대장경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의 접근을 시도·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와 제24집 이후에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은, 고려대장경의 底本이라 할 수 있는 '開寶藏에 관한 연구'(2002.12)가 시도되었는가 하면, 한편 鎮兵大藏經에 관하여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과제'(2002.12)가 제시된 이후, '일본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2007.6)이 게재되면서 鎮兵大藏經의 全貌를 가름할 수 있는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리하여 진병대장경에 판각된 『어제비장전』의 판본 및 변상도(판화)에 관한 '저본과 판각'(2010.6) 및 '문자 異同과 校勘'(2010.12) 그리고 '避諱·缺劃字에 의거한 初造藏本 再造藏本の 저본'(2016.6) 등의 연구가 연속적으로 수반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21세기 이후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고려대장경 연구에 있어서 일본 소재 진병대장경의 印本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장경의 底本인 開寶藏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韓·中·日에 걸쳐 그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서지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표 1>에서는 '41. 『광흥명집』 재조대장경판의 補刻'과 같이 개개 경전 등이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대장경(판)을 조명하는 연구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위의 표에 포함시켰음.

9) <고려대장경연구소>는 南禪寺 所藏 鎮兵大藏經 印本에 관한 조사결과(책임연구원: 남권희 교수)를 白書로 출판하였다(고려대장경연구소,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2010~20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10) 이하 본문 논술의 전개에 관한 편의를 위하여, 각 表에서 언급되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그 '핵심주제'를 먼저 따옴표로 묶어 제시하고, 그 (발행년.월)은 괄호 속에 제시하여 表記하는 방식을 취함.

<표 1> 大藏經 관련 연구현황¹⁾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大藏目錄》과 《縮刷藏目錄》·《卍字藏目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김성수	창간호	1986.9	105-127
2.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오용섭	창간호	1986.9	213-249
3.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정필모	제2집	1987.9	3-108
4. 光武 3年刷「高麗大藏經」	양계봉	제5.6집	1990.12	195-203
5. 高麗四大藏經板의 顛末 - 妙香山 普賢寺의 大藏經板	정필모	제10집	1994.12	31-44
6. 舊代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 開元釋教錄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강순애	제11집	1995.12	75-166
7.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강순애	제12집	1996.12	115-169
8. 大藏經의 翻譯·解釋·分類	신규탁	제15집	1998.6	339-358
9. 「八萬大藏經」名稱의 由來	오용섭	제16집	1998.12	63-94
10. 「校正別錄」의 完成과 入藏에 대한 考察	오용섭	제18집	1999.12	193-220
11. 高麗大藏經校正別錄의 學術的 意義	강순애	제20집	2000.12	253-297
12. 中國國家圖書館 所藏의 「開寶藏」 殘本 研究	유부현	제24집	2002.12	191-212
13.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오용섭	제24집	2002.12	61-88
14.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봉안	오용섭	제27집	2004.6	5-26
15.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오용섭	제30집	2005.6	319-340
16.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김성수	제32집	2005.12	35-60
17.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유부현	제33집	2006.6	167-188
18. 日本 南禪寺 所藏의 高麗 初雕大藏經	남권희	제36집	2007.6	81-121
19. 初雕藏 『御製秘藏證』 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유부현	제45집	2010.6	235-258
20. 고려 팔만대장경 「阿毘達磨大毘婆沙論」 판각에 관한 사례 연구	곽동화	제46집	2010.9	403-433
21.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각구성에 관한 연구	강순애	제46집	2010.9	107-131
22. 『御製秘藏證』 大藏經 板本의 文字異同과 校勘	유부현	제47집	2010.12	57-92
23. 高麗藏(初雕藏·再雕藏)의 底本에 대한 一考	유부현	제48집	2011.6	131-152
24. 고려대장경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유부현	제49집	2011.9	389-404
25.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송일기	제49집	2011.9	41-76
26. 守其의 家系와 권내교감기	오용섭	제50집	2011.12	161-185
27. 고려대장경 경관의 分司大藏都監 刊記에 대한 연구	유부현	제51집	2012.6	205-243
28. 고려 팔만대장경 「法苑珠林」의 판각에 관한 연구	강순애	제51집	2012.6	5-53
29.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이본 연구	임기영	제52집	2012.9	429-471
30.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유부현	제55집	2013.9	265-289
31. 聖語藏經卷과 正倉院文書 - 聖語藏 「神護景雲二年御願經」을 중심으로	飯田剛彦	제56집	2013.12	575-606
32. 聖語藏經卷 개관	杉本一樹	제56집	2013.12	545-573
33.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復刻	이종수	제56집	2013.12	327-352
34. 契丹과 高麗의 佛敎文獻 交流	남권희	제56집	2013.12	5-42
35. 「佛說末羅王經」 大藏經 板本의 文字異同과 性格	유부현	제57집	2014.3	209-224
36. 개보장에 추가 입장된 장소와 집전류 경전	유부현	제59집	2014.9	175-199
37.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관한 고찰	김성수	제64집	2015.12	81-107
38. 대정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의 관계	유부현	제65집	2016.3	39-64
39. 종래 避諱缺割字에 의거하여 추정된 '初雕藏本 再雕藏本의 底本'에 대한 고찰	유부현	제66집	2016.6	121-142
40. 「廣弘明集」 再雕藏經板의 補刻(埋木)에 대한 연구	유부현	제69집	2017.3	239-265
41.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연구	유부현	제70집	2017.6	253-294

11) <표 1>부터 <표 11>까지의 각 데이터는, 著作權 및 研究者 實名을 존중하고, 讀者들의 검색편리를 勘案하여 '논문명, 저자명, 학회지 권호, 발행년월, 해당 페이지'만을 明記하였다. 비고欄을 두어 각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그 분석은 본문에서 다루고, 表는 데이터 5요소의 제시에 국한함.

셋째, 八萬大藏經에 관한 21세기 이후의 논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大藏經 移安記’(2002.12)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대장경 所收 各經 板刻’(2010.9)에 관한 문제와, ‘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2010.9) · ‘法苑珠林의 판각’(2012.6)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2011.9)과 ‘守其의 家系와 권내교감기’(2011.12), ‘해인사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2015.12)와 ‘재조대장경의 補刻(埋木)’(2017.3) 등 팔만대장경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그 연구의 범위도 확산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위 대장경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연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한국서지학회 연구자 중에서 12명이나 되는 연구자들이 대장경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이상 「書誌學研究」 제70집까지 수행된 ‘대장경 관련 연구현황’을 일괄하여 보면, ① 「대장목록」과 「교정별록」을 비롯한 初雕藏과 再雕藏의 구성 및 편성체계, ② 고려대장경의 연구과제와 그 조성과정 및 開寶藏과의 관계, ③ 고려대장경의 판각 · 교감 · 피휘 등의 문제, ④ 분사대장도감의 문제, ⑤ 거란(遼)과 고려의 불교문헌의 교류 문제, ⑥ 일본 南禪寺 소장 鎮兵大藏經 印本에 대한 조사 등등, 고려대장경과 관련한 서지학적인 광범위한 基盤研究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에는 더욱 세부적인 주제와 관점에서의 微視的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諸宗教藏 관련 연구

‘章疏’는 大藏經(經·律·論 三藏) 등에 관한 東洋學問僧들의 연구논저들을 通稱한다.¹³⁾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각국사 義天이 2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章疏들을 集大成한 諸宗教藏(續藏經) 및 그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과 관련한 연구논문은 21편이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종교장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서지학연구」에서 발표 ·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제 13집’(1997)부터라고 볼 수 있다. 즉,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속장 수용성(1997.6)을 필두로 하여, ‘송광사 사천왕상 腹藏에서 발견된 章疏들’(2004.6) 및 이들 장소 중 ‘거란 章疏’(2005.6)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법화경」 章疏를 판각한 刻手(2005.6)에 관한 연구 등 이 분야의 개척적인 연구노력이 특히 주목된다.¹⁴⁾

12) 위 41편의 논문 중에서 유부현은 무려 16편이나 되는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이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는 초조장과 재조장의 校勘과 異同 등을 비롯하여 ‘고려대장경의 문헌학적 연구’(2011.9) 및 ‘분사대장도감의 刊記’(2012.6) 등 대장경에 관한 校勘學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篇章을 나누어 그 教義를 논한 것을 ‘章’이라 하고, 經論의 각 文句의 뜻을 따라 해석한 것을 ‘疏’라고 한다. 특히 고려 大覺國師 義天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및 거란 등 東洋諸國의 章疏들을 모두 수집하여 諸宗教藏을 造成한 업적은 世界佛教史上 唯一하고도 前無後無한 事件이라 할 수 있다.

<표 2> 제종교장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 · 호	발행연월	페이지
1.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續藏受容性	오용섭	제13집	1997.6	237-264
2.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¹⁵⁾	강순애	제27집	2004.6	27-61
3. 『妙法蓮華經玄義』, 『法華文句記』의 刻手 研究	김상호	제30집	2005.6	45-59
4.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의 丹本章疏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강순애	제30집	2005.6	5-43
5.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58집	2014.6	55-89
6. 大覺國師 義天과 唯識章疏에 관한 一考	최종남	제62집	2015.6	137-165
7. 高麗時代 天台宗 所依 章疏와 『新編諸宗教藏總錄』	박용진	제62집	2015.6	101-136
8.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서지적 연구	김성수	제62집	2015.6	65-99
9. 天台·法華 章疏의 刊行과 流通	남권희	제62집	2015.6	5-63
10.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66집	2016.6	75-101
11. 韓國 所在 佛教 教藏文獻의 書誌調査	남권희	제66집	2016.6	45-74
12. 教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大師 著述을 중심으로	서대원	제67집	2016.9	209-230
13.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박용진	제67집	2016.9	177-207
14. 중국·티베트 佛典 目錄들에 있어서 部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있어서 部의 分類體系에 대한 대조 연구	최종남	제67집	2016.9	119-146
15. 日本所在 佛教 教藏文獻의 書誌調査	남권희	제67집	2016.9	5-44
16. 제종교장 『화엄경』 章疏의 書名에 관한 연구	서대원	제69집	2017.3	175-192
17. 教藏의 成立과 역사적 변천	박용진	제69집	2017.3	151-173
18. 간경도감본 『成唯識論義燈抄』 권3·4의 판본대조 연구	최종남	제69집	2017.3	133-150
19.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正體性 및 體系書誌的 分析	김성수	제69집	2017.3	103-131
20. 諸宗教藏 文獻 연구 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	남권희 전재동	제69집	2017.3	63-101
21.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김천학	제70집	2017.6	203-226

둘째, 그러다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2014년에 諸宗教藏에 관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可動하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서지학연구』 ‘제62·66·67·69집’에 연속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¹⁶⁾ 여기서는 諸宗教藏과 그 목록인 『교장총록』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면서 서지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학·불교학적인 세부연구의 성과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 확장성을 보유하게 되었음에 그 의의가 있다.¹⁷⁾

14) 왜냐하면, 1千年前에 의천이 주목하고 심혈을 기울여 集成한 諸宗教藏의 章疏들과 그 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에 관한 연구가 비로소 <한국서지학회>의 專門研究者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5) 이 논고는, 腹藏典籍과 관련한 논문이어서 ‘密教’ 부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그 논술에서 단 1종의 正藏을 제외하면, 모두 諸宗教藏이기 때문에 본 節에 포함시켰음.
 16) 즉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2014.6)에 관한 연구 이래 ‘천태·법화 章疏의 간행과 유통’(2015.6), ‘의천과 唯識章疏’(2015.6), ‘고려 천태종 소의경전과 교장총록’(2015.6), ‘천태·지자대사 저술을 중심으로 한 教藏의 書名’(2016.9) 등 ‘법화경』 章疏’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발표되었다.
 17) 『교장총록』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2016.6)을 비롯하여, 『教藏總錄』의 대교와 교감 연구(2016.9) 및 『교장총록』과 중국·티베트 佛典 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비교(2016.9)가 수행되었는가 하면, ‘일본 소재 教藏 문헌의 서지조사’(2017.3집)와 ‘제종교장 『華嚴經』 章疏의 書名’(2017.3) 및 ‘제종교장 문헌 연구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2017.3)

이상과 같이, 諸宗教藏 및 「교장총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제종교장의 수집’에서부터 ‘「교장총록」의 편성체계’ 등의 연구와, ‘제종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 및 그 ‘章疏의 책명에 관한 연구’ 및 ‘제종교장 문헌연구 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제종교장과 「교장총록」에 관한 탄탄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연구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주목된다. 제종교장 관련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므로 향후의 연구 성과도 지켜볼 일이다.

3. 單位佛書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불교서지학 논문 중 單位佛書에 관한 연구는 다시 ①佛經·②寫經·③寺刹刊行本·④禪書·⑤密教經典·⑥其他佛書로 그 세부주제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單位佛書 관련 연구들을 위의 세부주제별로 그 연구현황을 각각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개개佛經 관련 연구

단위불서 관련 연구에서 ‘箇箇佛經’ 관련 연구논문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첫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華嚴經」을 비롯한 단위佛書 중 개개佛經을 연구의 주제로 다룬 연구는 「金光明經」의 口訣 연구(1998.6)를 필두로 하여 3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화엄경」이 7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부모은중경」이 5편 연구되었으며, 「금강경」도 5편이나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佛經 관련 연구에서 「화엄경」·「금강경」·「부모은중경」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매우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들 경전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 및 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경전에 속하는 편인데, 한국서지학의 佛經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밖에 「금광명경」·「능엄경」·「天請問經」·「원각경」·「대승기신론」·「법화경」·「반야심경」·「六經合部」¹⁸⁾·「佛祖三經」¹⁹⁾·「불정심다라니경」·「관무량수경」 등등 다양한 단위 불경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개개佛經에 관한 한국서지학계의 연구 영역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됨과 동시에 深度 깊은 연구로 나아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등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8) 『六經合部』(成達生 筆書 편성): 「金剛經」·「화엄경 보현행원품」·「수능엄경」·「觀世音菩薩禮文」·「법화경 보문품」·「아미타경」의 6經.

19) 『佛祖三經』: 「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滄山靈祐 編). 위산영우(771-853): 滄仰宗의 창시자.

<표 3> 佛經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남권희	제15집	1998.6	309-338
2. 朝鮮時代 木版本 『父母恩重經』의 變相圖 판화에 관한 研究	이태호	제19집	2000.6	219-253
3. 韓國本 『父母恩重經: 漢文』의 板本에 관한 研究	송일기	제19집	2000.6	179-218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研究	송일기	제22집	2001.12	181-200
5. 晋本 華嚴經 研究	유부현	제28집	2004.9	179-194
6. 새로 發見된 『注金剛般若波羅蜜經』과 松廣寺 寺名에 관한 研究	노기춘	제29집	2004.12	361-380
7. 寺刊版 50卷本 『華嚴經』 卷第29 研究	유부현	제29집	2004.12	113-131
8. 京都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 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 특히 '金剛波若經'의 別稱 問題를 중심으로	송일기	제30집	2005.6	129-149
9. 敦煌寫本 『父母恩重經』의 校勘學的 研究	송일기	제35집	2006.12	145-181
10. 고려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교감에 관한 연구	박문열 김동환	제37집	2007.9	221-252
11. 『楞嚴經』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곽동화 강순애	제39집	2008.6	255-290
12. 敦煌本 『金剛經』의 校勘學的 研究	김기화	제42집	2009.6	137-168
13. 『天請問經』에 대한 考察	김은미	제45집	2010.6	295-325
14.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김미경 강순애	제46집	2010.9	329-370
15.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송일기	제47집	2010.12	23-56
16. 敦煌本 『大乘起信論』과 註釋書의 校勘學的 研究	김기화	제48집	2011.6	365-398
17.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 問題	송일기	제48집	2011.6	83-130
18.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에 관한 研究	박문열	제50집	2011.12	5-45
19. 開運寺本 晉本 『華嚴經』 卷33의 書誌的 研究	송일기	제51집	2012.6	359-385
20. 『六經合部』의 板本 研究	송일기 김유리	제52집	2012.9	193-225
21. 『佛祖三經』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이상백	제53집	2012.12	155-178
22. 正倉院 『花嚴經』 권제72-80의 節略 양상과 특징	김성주	제55집	2013.9	337-370
23. 四川 安岳 臥佛院 59호굴 『佛說報父母恩重經』의 校勘 研究	송일기	제55집	2013.9	39-64
24. 정창원 문서와 광명황후원경	Yu, Sasada	제56집	2013.12	521-544
25.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석보』의 관계	김기종	제56집	2013.12	475-498
2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敦煌 經卷 『大般涅槃經』 卷第三과 高麗大藏經 비교 연구	정광훈	제58집	2014.6	619-643
27. 麗代鮮初의 17字本 『法華經』 板本 研究	송일기 정왕근	제59집	2014.9	347-370
28.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諸符號	박부자	제59집	2014.9	259-280
29.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우진웅	제60집	2014.12	347-379
30. 청익 간행의 고려본 『금강반야바라밀경』	오용섭	제68집	2016.12	247-271
31. 『華嚴石經』의 底本 문제에 관한 高찰	조미영	제69집	2017.3	345-362
32. 朝鮮刊本 『佛說觀無量壽佛經』 研究	송일기	제69집	2017.3	221-238

셋째, <표 3>에 보이는 32편의 논문들은 주로 해당 개개 佛經에 대한 ‘板本·底本·校勘’ 등의 연구에 主力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른바 형태서지학과 원문서지학(校讎學·校勘學) 영역에서의 그 기초적 단계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해당 경전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 正體性을 밝혀주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연구를 계승하여 향후 더욱 세부적인 연구로 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歷代로 간행된 佛經의 엄청난 種數를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현재 한국서지학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서지적 연구를 수행한 개개 佛經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극소수의 초보적 단계의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향후 보다 활발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문화재와 각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貴重書 佛經들의 경우를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향후 ‘개개 불경’ 뿐만 아니라 ‘불경들의 상호비교’ 또는 ‘部類別 연구’ 등에 관한 深度가 깊고 한층 더 細心하면서도 微視的인 연구의 進展을 계속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 사례 중의 하나로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석보」의 관계”(2013.12) 연구 등을 들 수 있다.²⁰⁾

3.2 寫經 관련 연구

「서지학연구」에서 ‘寫經’과 관련한 연구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두 19편에 이른다.

첫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寫經 분야 연구는 특정 연구자 6인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연구의 주된 관심도 ‘변상화 및 표지’에 관한 연구가 무려 11편에 달하면서 형태서지적 측면 및 古美術史 분야의 연구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寫經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 자료가 주로 고려시대의 遺物이기 때문에 회귀성을 띠고 있으며, 사경의 변상화 및 표지 등의 특징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경의 發願者·財施者 및 조성년대의 문제’와 ‘변상화의 양식 및 내용 분석’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셋째, 寫經은 國王이나 특정 개인 發願의 신앙적 요소가 강하고, 또한 목판인쇄 등에 입각한 정보의 대량 전달(印刷史的) 및 그 유통을 주로 연구하는 서지학의 일반적인 연구경향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寫經이 지니고 있는 기록적 요소와 형태서지학 및 원문서지학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사경에 관한 연구는 한국서지학에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²¹⁾

20) 현재 그 전체가 전하지 않는 「월인석보」는 총 30여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위의 연구는 이와 같은 「월인석보」 중에서 「金剛經 諺解」 ‘권22·23·25’ 중에 이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추적·고찰하였다. 바로 이러한 연구는 원문서지학 영역에서 각 불전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개개 불교 경전이 ‘거대 문학서’로도 분석되는 「월인석보」 속에 어떻게 융합되는가?”의 문제 등을 규명하는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는 크고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된다.

21) 왜냐하면, 寫經 변상화 등에 관한 연구는 古美術史的 연구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寫經의 연구 영역에서 그 도서의 형태를 비롯하여 그 내용 및 書寫者·發願者의 문제 등등의 여러 요소 중에는 서지학적인 연구과제의 비중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경에 관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불교학적 연구의 필요성도

<표 4> 寫經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高麗寫經 表紙畫에 관한 연구	권희경	제17집	1999.6	7-50
2. 益山 王宮塔 『金紙金剛寫經』의 文獻學的 接近	송일기	제24집	2002.12	131-159
3.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 (1)	권희경	제24집	2002.12	5-59
4.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Ⅱ)	권희경	제25집	2003.6	17-59
5. 親元系 高麗寫經의 發願者·施財者에 관한 연구	권희경	제26집	2003.12	25-50
6.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권희경	제27집	2004.6	235-279
7. 敦煌研究院 所藏 建武四年本 〈金剛寫經〉의 眞偽問題	송일기	제28집	2004.9	227-246
8. 禰王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 사경의 變相畫의 內容분석	권희경	제28집	2004.9	195-226
9. 새로 발견된 한글 음역 사경 『묘법연화경』의 연구	현영아	제29집	2004.12	511-538
10.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神衆合部』 變相畫에 관한 연구	권희경	제29집	2004.12	241-275
11. 일본 대산사 소장 국왕발원사경의 연대에 관한 고찰	권희경	제30집	2005.6	377-404
12. 고려 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권희경	제31집	2005.9	153-200
13. 年代 불확실한 고려 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 분석	권희경	제32집	2005.12	443-480
14. 고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과 기타사경 변상화의 內容분석	권희경	제33집	2006.6	327-374
15. 메트로폴리탄博物館 所藏 『紺紙銀字妙法蓮華經』 第2卷에 대한 考察	김종민	제36집	2007.6	151-171
16.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研究	조수진	제37집	2007.9	253-285
17. 日本 徳川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編年 研究	조수진	제40집	2008.9	213-246
18. 고대 사경지 제작에 관한 연구	박지선	제56집	2013.12	499-520
19. 紺紙銀字 『文殊最上乘無生戒牒』에 관한 연구	조수진	제56집	2013.12	275-296

넷째, 『서지학연구』에 위와 같은 사경 관련 연구가 19편이나 게재된 것은, 서지학 연구영역의 外延을 그만큼 확장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는 높이 평가된다.

위와 같이 寫經에 관한 형태서지적인 측면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연구된 성과에 힘입어, 이제는 ‘사경의 내용, 그 발전사적인 비교 연구’ 등 체계서지학 및 원문서지학적인 연구 등도 향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3 寺刹刊行本 관련 연구

單位佛書 관련 연구 분야에서 寺刹刊行本(寺刊本)에 관한 연구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寺刊本에 관한 연구는 ‘단위 사찰 간행본’ 및 ‘시대별·지역별 불서 간행’에 관한 사항들로 다시 細分할 수도 있으나, 본 절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렇기 때문에 寫經에 관한 연구는 서지학 및 인접학문 間 공동연구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하겠다.

<표 5> 사찰간행본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 朝鮮朝 有刊記佛書を 중심으로	송일기	제10집	1994.12	523-552
2. 12世紀 刊行의 佛敎資料에 관한 研究	남권희	제17집	1999.6	373-420
3. 高山 花岩寺 刊行 佛書의 考察	송일기	제18집	1999.12	253-283
4. 順天 松黃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 壬亂以前 有刊記佛書を 中心으로	노기춘	제25집	2003.6	447-476
5.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Ⅱ) - 壬亂以後 有刊記佛書を 中心으로	노기춘	제26집	2003.12	303-346
6.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김성수	제27집	2004.6	151-186
7. 송광사 소장 佛書의 보존에 관한 연구	박지선	제30집	2005.6	61-72
8. 울주 雲興寺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배현숙	제44집	2009.12	37-83
9.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송일기 박민희	제46집	2010.9	371-401
10.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채상식	제47집	2010.12	295-320
11. 朝鮮時代 妙香山 普賢寺 刊行 版本考	우진웅	제51집	2012.6	165-203
12. 16세기 사찰관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학적 의의	손성필	제54집	2013.6	359-379
13.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임기영	제54집	2013.6	295-357
14. 安東 廣興寺 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임기영	제55집	2013.9	437-489
15. 북한의 불교 고문헌과 그 특성	이종수	제58집	2014.6	521-547
16.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이상백	제58집	2014.6	465-495
17. 北漢山 지역의 寺刹刊行 佛書에 관한 연구	김성수 최정이 남권희	제58집	2014.6	353-393
18. 북한산 태고사 소장 책판과 관련기록 연구	남권희 권오덕	제58집	2014.6	317-352
19. 송광사 경패의 천자문 질(함)호에 대한 연구	유부현	제58집	2014.6	203-226
20. 부석사 간행 판본 연구	임기영	제59집	2014.9	305-345
21.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오용섭	제63집	2015.9	119-148

첫째, ‘단위사찰 간행본’에 관한 연구는 <표 5>에서 ‘1.순천 송광사, 3.고산 화암사, 8.울주 운흥사, 11.묘향산 보현사, 13.안변 석왕사, 14.안동 광흥사, 16.황해도 고덕산 귀진사, 20.영주 부석사, 21.경기도 삭령 수청산 용복사’ 등 ‘歷代로 佛書刊行이 유명하였던 사찰’ 및 ‘최근에 佛書들이 많이 발굴된 단위 사찰’ 등이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 중 ‘송광사 간행불서’ 등 송광사 관련 연구가 무려 6편(1994.12~2014.6)이나 게재됨으로써, 이 사찰의 간행 불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이 주목된다.²²⁾

둘째, ‘단위 사찰’의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시대별·지역별 불서 간행’에 관한 연구는 ‘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1996.6) ‘13세기 전기의 간행불서’(2004.6) ‘16세기 사찰관 불서 간행’(2013.6) ‘북한의 불교 고문헌’(2014.6) ‘지리산 소재 사찰 조선시대 개관불서’(2010.9) ‘북한산 지역 사찰간행 불서’·‘북한산 태고사 소장 책판’(2014.6) 등 12·13·16세기 및 북한·지리산·북한산 지역 등

22) 송광사는 三寶寺刹 중의 하나로 고려시대의 수많은 國師를 배출하였고, 지금도 佛書를 비롯한 엄청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서지학연구의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지역별 불서간행에 관한 상황을 보다 巨視的이고 通時的이면서 확장된 지역별·시대별 불서간행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아직도 餘他의 시대별·지역별 불서간행에 관한 연구의 餘地가 더 많아서, 그 보충 연구가 요구된다.

3.4 禪書 관련 연구

單位佛書 관련 연구 분야에서 禪書에 관한 연구는 <표 6>과 같다.

<표 6> 禪書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知訥의 撰述禪書와 그 所依典籍에 관한 研究	임영숙	창간호	1986.9	251-267
2. 高麗時代 禪書撰述와 그 所依典籍	임영숙	제2집	1987.9	181-231
3. 『禪家龜鑑』 異本考	송일기	제2집	1986.9	181-232
4. 現在 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流通	박상국	제4집	1989.12	125-159
5. 『선가귀감』 언해본과 한문본	송일기	제5,6집	1990.12	289-306
6.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배현숙	제5,6집	1990.12	161-181
7. 『禪家龜鑑』 成立考	송일기	제7집	1991.12	33-54
8.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김영선	제14집	1997.12	161-212
9. 分司大藏都監版 『宗鏡錄』의 底本考	유부현	제30집	2005.6	115-128
10. 『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	송정숙 정영식	제50집	2011.12	537-559
11. 서산대사의 『心法要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송정숙	제53집	2012.12	179-203
12. 『禪門拈頌說話』의 판본과 登梓本 書寫者 연구	남권희	제59집	2014.9	5-42
13. 『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송정숙	제60집	2014.12	109-143
14.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송일기	제63집	2015.9	63-90
15.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서지적 연구	김은진 송일기	제64집	2015.12	319-347
16. 조선시대 사찰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서지적 연구	송일기 김동연	제65집	2016.3	91-117
17.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법보단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김성수	제67집	2016.9	45-78

첫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학회지에서 禪書와 관련한 서지적 연구는 ‘보조국사 지눌의 찬술선서’(1986.9)를 비롯하여 『육조대사 법보단경』(2016.9)에 이르기까지 모두 17편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관련 禪書는, ‘知訥의 撰述禪書·『선가귀감』·『대혜보각선사서(書狀)』·『고봉화상선요(禪要)』·『종경록』·『인천안목』·『심법요초』·『선문염송』·『벽암록』·『四法語』²³⁾·

23) 四法語: 『皖山(완산)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蒙山和尚示衆』·『古潭和尚法語』. ‘皖山’은음이 ‘완산’이나, 佛家에서는 이를 ‘완산’으로 읽고 있어서 이를 따라 ‘완산정응선사’라 표기한다. 1584년에 묘향산 義湘庵에서 간행된 『三家錄』에서는 ‘完山’으로 표기하고도 있다.

「몽산화상법어약록」·「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節要)」·「법보단경」 등 13종 이상의 禪書²⁴⁾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禪書들에 대한 서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서지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²⁵⁾(2015.9)에서는 그 諺解本の 유통과 그 번역자인 信眉 및 현존본까지 조사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人天眼目」의 편찬·수용과 판본 비교²⁶⁾(2011.12)에서는 '1357년에 고려인 姜金剛이 원나라 수도에서 「인천안목」을 인출한 사실」 및 「이 책의 有刊記 5種의 판본 비교」 등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특정 佛書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과 서지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불교문헌의 편찬과 간행 등에 관한 한층 더 심화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지학이 불교학에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분석된다.

둘째, 禪宗에서는 不立文字를 표방한다.²⁵⁾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禪書들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경험적 수행 없이는 그 '깨침의 길'은 遙遠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서들에 대한 1차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서지학적인 연구에 속하는 그 간행과 유통 및 그 내용적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더 깊이 認知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불교 조계종 등 禪宗의 이론적 기반 및 그 발전도 기대된다. 왜냐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요 禪書 중 「都序(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에 관한 상세 연구도 未備하다. 보조국사 지눌의 찬술 선서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미비하며, 「법보단경」 관련 연구도 '고려본 1種'(2016.9)에 대한 연구만 이제 겨우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증도가」를 비롯한 「禪宗永嘉集(諺解)」 등에 대한 원문서지학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밖에 白雲景閑과 懶翁惠勤의 저술 및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印度 출신 指空和尚에 대한 연구 없이는 고려 후기의 禪佛敎 및 한국불교 조계종의 基底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⁶⁾

요컨대, 禪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향후 더욱 심도 있고, 그 밖의 다양한 禪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5 密敎經典 관련 연구

單位佛書 관련 연구 분야에서 密敎經典에 관한 연구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密敎經典 관련 연구현황은, 밀교경전과 직접 관련된 연구 5편과 腹藏典籍과 관련한 3편의 논문이 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24) 위 <표 6>에서, 「證道歌」와 「直指」 관련 연구는 '한국 및 세계 금속활자인쇄술의 始原'과 관련하여 별도로 논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논급을 제외하였음.

25) 이 구절은, '文字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經典이나 그밖의 佛典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견해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대 祖師 중 경전을 부정한 이는 한 사람도 없다. 達摩는 「楞伽經」을 존중하였고, 六祖惠能은 「金剛經」에 의지하였다.

26) 현재 한국불교 조계종은 太古普愚 화상을 宗祖로 삼고 있고, 看話禪에 주력하고 있는 현황이다.

첫째, 밀교 관련 연구는, ‘고려시대 밀교문헌의 간행과 특징’(2014.6)과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2011.9)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고려 및 조선 시대 밀교경전의 간행에 관한 全貌를 파악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표 7> 密敎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密敎經典의 版書本과 版書의 插入에 관한 연구	우진웅	제48집	2011.6	255-288
2. 朝鮮時代 密敎經典의 刊行에 대한 연구	우진웅	제49집	2011.9	235-273
3. 高麗本 『密敎大藏』 卷61에 관한 書誌의 研究	박광현	제58집	2014.6	437-463
4. 고려시대 密敎 문헌의 간행 및 특징	임기영	제58집	2014.6	395-435
5. 高麗時代 『密敎大藏』 卷9의 書誌의 研究	남권희	제58집	2014.6	5-54
6. 靈光 佛甲寺 八相殿의 腹藏典籍考	강순애	제32집	2005.12	61-105
7.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송일기	제58집	2014.6	119-146
8.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윤상기	제65집	2016.3	5-38

게다가 지금까지 고려불교사에서 문헌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던 『密敎大藏』에 관한 연구 2편(2014.6)에서는 각 대상 자료의 형태서지적인 측면과 원문의 구조를 밝히고, 아울러 재조대장경에서의 관련성²⁷⁾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연구 성과는 크게 평가된다.

둘째, <표 7>의 6.~8.의 腹藏典籍들은 佛腹藏의 밀교의식에 의거하여 복장된 전적들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2015.12)에서는 무려 60종의 전적들이 거론되고 있다.²⁸⁾ 여기서 종래 밀교의식과 크게 밀접하지 않다고 보이는 禪書들도 대거 복장된 사항은 주목된다.²⁹⁾ 이는 또한 佛腹藏 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국사 아미타불 복장’(2014.6)에서는, 高麗本으로 「화엄경」(晉本)·「법화경」·「密敎大藏」(卷9)·「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장수멸죄다라니경」·「불정심다라니경」 등이 고찰되고 있으며, 朝鮮本으로는 「금강경」·「몽산화상법어약록」·「법화경」·「약사경」·「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五大眞言」 및 11종의 印本 다라니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범어사 원효암 관음상 복장’(2016.3)에서는 「법화경」·「禪門拈頌」·「六經合部」·「지장보살본원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목판인쇄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하여 「大日經」·「金光明經」·「仁王經」·「藥師經」·「千手[觀音]經」³⁰⁾ 등등도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밀교

27) 팔만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에는 제141함(賴)에서 제150함(大)에는 ‘眞言 陀羅尼經類가 31종 이상 수록되어 있다(남권희, “고려시대 『밀교대장』 권9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49-50. 참고).

28) 여기서는 「예념미타도량참법」·「법화경」·「직지」·「남명송증도가」·「천노금강경」·「대혜보각선사서(書狀: 大慧書)」·「선원제전집도서(都序)」·「고봉화상선요(禪要)」·「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節要)」·「선가귀감」·「誠初心學人文」 등등의 전적들이 거론된다.

29) 한국불교는 전통적으로 敎宗과 禪宗 및 密敎가 혼합된 이른바 通佛敎의 성격을 띠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30) 完全書名: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大陀羅尼經」.

경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목판본으로 유명한 『보협인다라니경』을 위시하여 『능엄경』·『불정심관세음다라니경』·『예수시왕생칠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등도 또한 밀교 경전에 속한다. 게다가 고려불교사에서 중요시되는 ‘八關會’와 ‘燃燈會’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호국 불교와 민중신앙이 결합하여 전개된 무수한 각종 도량(道場)³¹⁾은 밀교경전과 그 의식집들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보아야 것이다.

넷째, 그밖에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간행된 眞言·다라니(陀羅尼)類와 의식집 및 水陸齋와 喪禮(茶毘禮 포함), 그리고 각종 佛腹藏과 관련한 밀교경전에는 『五大眞言集』을 비롯하여 심지어 『華嚴經』과 『法華經』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지학과 불교학계에서는, 이러한 밀교경전류에 대한 部類別 경전 등에 대하여 더욱 더 세부적으로 그 연구를 전개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불교의 한반도 전래 이후,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한국불교 信行의 다양성 및 신앙의 正體性 확립을 위해서도 이들 밀교류 경전 및 밀교사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고 활발하게 그 연구가 전개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6 其他佛書 관련 연구

單位佛書 관련 연구 분야에서 其他佛書³²⁾에 관한 연구는 <표 8>과 같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書誌學研究』에서 ‘기타 불서’에 관한 연구는 ‘『三家龜鑑』編成考’(1993.12)에서 비롯됨을 볼 수 있다. 즉, 儒·佛·仙 3教에 관한 귀감서인 『三家龜鑑』에서 휴정의 三家에 관한 관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 분석된다.³³⁾

둘째, 『월인석보』 관련 논문이 6편에 도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³⁴⁾ 한편, 『석보상절』의 底經’(2005.6) 및 『월인석보』의 팔상관화’(2002.12)의 연구도 주목된다.

셋째, <표 8>에서는 ‘한국불교 講院教材’에 관한 연구도 주목된다. 즉 講院 ‘沙彌科 教材’(1994.12)와 四教科의 ‘『四教』³⁵⁾의 성립’(1995.12)에 관하여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승려교육의 기반이 되는 講院教材 간행과 관련한 각각의 시기와 지역적 분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불교 講院教育의 역사적 기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1) 문두루도량(文豆婁道場), 百高座仁王道場, 藏經道場, 金光明道場, 消災道場, 藥師道場 등등.

3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연구의 성격이 보다 확장된 불교관련 자료들에 관한 서지적 연구들을 其他佛書라는 분류개념으로 일괄하여 묶어 보았다.

33) 서산대사 휴정이, ‘禪師의 안목에서 儒家와 道家에 관한 관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한 비교 의식 등의 사상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의 문제 등을 주목할 수 있는 연구이다.

34) 즉 ‘새로 발견된 『월인석보』 권25(1998.12)와 권23(1999.6) 및 권20(2001.6)’의 각 卷에 대하여 학계에 처음으로 각각 발표하는 연구 성과를 올리는 등 『월인석보』의 발굴에 집중하였고, 그 ‘底本에 관한 연구’(2001.12)도 뒤를 이었다.

35) 四教: 『금강경』·『능엄경』·『圓覺經』·『기신론』.

<표 8> 其他佛書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三家龜鑑』編成考	송일기	제9집	1993.12	25-51
2. 韓國佛敎 講院敎育 沙彌科 敎材의 書誌的 研究	고희숙	제10집	1994.12	883-932
3. 『四敎』의 成立에 관한 書誌的 研究	김성수	제11집	1995.12	49-73
4. 새로 발견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 - 그 構成과 底經을 중심으로	강순애	제16집	1998.12	95-125
5. 무량사 번각본 『月印釋譜』 권23에 관한 연구	강순애	제17집	1999.6	51-82
6. 朝鮮 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남권희	제18집	1999.12	445-519
7. 중국 현대 불교 전적 분류법에 관한 연구	김종천	제18집	1999.12	395-420
8. 〈海印寺 事蹟〉 刊本考	김영선	제19집	2000.6	321-343
9.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권희경	제20집	2000.12	157-212
10. 同願者로 본 태조2년 印經考	오용섭	제20집	2000.12	25-55
11. 새로 발견된 초참본 『월인석보』 권20에 관한 연구	강순애	제21집	2001.6	7-58
12. 『月印釋譜』의 저본에 관한 연구	강순애	제22집	2001.12	63-96
13. 初刊本 『月印釋譜』 八相版畫의 研究	박도화	제24집	2002.12	241-278
14.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김기종	제30집	2005.6	151-182
15. 『佛氏雜辯』 초간본의 서지적 연구	오용섭	제33집	2006.6	303-326
16. 金敏榮 所藏 佛書의 書誌的 研究	윤혜영 강순애	제41집	2008.12	355-396
17.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송일기 한지희	제43집	2009.9	115-149
18. 『해동문헌총록』 佛家書籍에 대한 연구	리상용	제50집	2011.12	471-511
19.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에 대한 연구	우진웅	제50집	2011.12	351-386
20. 日本 要法寺版 및 潤齋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조형진	제55집	2013.9	227-263
21.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우진웅	제56집	2013.12	371-401
22. 조선시대 목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송일기	제62집	2015.06	167-197

넷째, <표 8>의 ‘口訣 자료’(1999.12)에 관한 연구는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종래 남권희 교수가 발굴한 『楞嚴經』에 의하여, 古書에 표기되어 있는 麗末鮮初 釋讀口訣에 관한 암호와 같은 口訣의 여러 문제들이 비로소 해독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口訣 자료들의 발굴과 정리는 한국 口訣 研究學界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韓國書誌學이 韓國中世語文學 분야의 연구에 그 礎石이 되었다³⁶⁾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國語史·書誌學·佛敎學 분야에서 동시에 요긴한 연구로 분석된다.

다섯째, <표 8>의 ‘15. 『佛氏雜辯』 초간본’(2006.6)의 서지적 연구는 불교학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자료로 보인다. 왜냐하면, 1398년에 정도전에 의하여 이른바 조선 불교계를 抹殺하기 위하여 저술·간행된 이 책은, 1465년(世祖 11)에 간행된 『삼봉집』에 합편되어 다시 간행(再刊)되고, 1487년

36) 위 연구에서는, 14세기말의 『고봉화상선요(禪要)]와 17세기말의 『금강경』 그리고 17세기초의 『대혜보각선사서(書狀)] 및 18세기초의 『법집별행록절요법입사기(節要)]를 비롯하여 『日蓮經』·『禪家龜鑑』·『都序』·『예불미타도량참법』·『지장보살본원경』·『치문경훈』 등에 표기되어 있는 구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조선 中期에서부터 舊韓末까지의 佛典에 표기된 口訣의 양상에 대한 通時的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에 또 다시 重刊되었다. 그러다가 이 책의 책판이 임진왜란 때 燒失되었으나, 1791년(正祖 15)에 『삼봉집』이 또 다시 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여섯째, <표 8>의 ‘17. 『中禮文』³⁸⁾’과 ‘19. 『水陸齋儀撮要』³⁹⁾’는 水陸齋⁴⁰⁾의 의식 절차를 정리·편찬한 책이다. 특히 ‘『中禮文』의 편찬고’(2009.9)와 ‘『水陸齋儀撮要』의 판본’(2011.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들의 ‘성립 및 편성체계’와 ‘현존하는 판본의 간행 시기와 그 지역 및 刻手 기록과 판화’ 등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록재 관련 佛書類에 대한 서지적 연구를 상세하게 수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상으로 其他佛書 관련 연구현황에서는 총 22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연구에서는 ‘『三家龜鑑』·『月印釋譜』·사찰 講院教材·불교문헌의 口訣·<해인사 事蹟>·『佛氏雜辨』·『中禮文』·『水陸齋儀撮要』 등등’에 관한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⁴¹⁾

4.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서지학연구』에서 한국 및 세계의 목판인쇄와 금속활자인쇄 문화의 始原과 관련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無垢淨光經)』·『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直指』·『남명전화상승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南明頌證道歌)』⁴²⁾와 관련한 연구들을 하나의 단위로

37) 결국 『불씨잡변』은 조선 末期까지 불교 말살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즉, 오용섭의 연구에서는 그 초간본을 서지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적 측면을 불교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 단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간행되고 유통됨으로써 그 책이 어떻게 조선시대 全時代를 통하여 종교적 말살(탄압) 정책의 거저가 되는지를 명심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38) 完全書名: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39) 完全書名: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40) ① 水陸齋: 물이나 육지를 떠도는 외로운 녀(孤魂)를 위로하기 위하여 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공양하는 종교의식(법회). 중국 양나라 武帝에 의하여 시작(503)됨. 그는 불교에 대한 信心이 두터워 有住無住의 고힌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의 공덕이라 생각하고, 의식문을 만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光宗 때(970) 갈양사에서 개설된 수록도량이 그 최초의 예이다. 조선시대에도 太祖 때 津寬寺를 國行水陸齋를 개설하는 寺社로 지정하여 크게 재의를 행하였다. 太宗 世宗 때에도 수록재는 여전히 크게 성행하였고, 中宗 때에 國行으로 거행됨은 금지되었으나, 민간에서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② 水陸齋儀: ‘수륙도량(水陸道場)’이라고도 함.

41) 그리하여, ‘其他佛書’ 관련 논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여러 연구 방법으로 그 연구 성과들을 알차게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간행한 『한글대장경』 제284권에, 그 書名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을 ‘남명전화상승증도가사실’이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즉 남명화상의 범명인 ‘法泉’을 ‘법전’으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지칭하고(읽고) 있는 것이 관행이라 볼 수 있다. 이는 ‘古音’ 또는 ‘吳音’이라 하여, 禪脈을 이어오는 禪家(절집안)에서는 ‘法泉’을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법전’이라고 지칭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證道歌 彥琪註』(제월통광, 『증도가 언기주』(서울: 불광출판사, 2008.))를 원토역주한 제월통광 스님도, 이 책의 14쪽에서, ‘송나라 남명법전

묶어서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 분야로 大分類하였다. 이제 그 각각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無垢淨光經」 관련 연구

「無垢淨光經」은 1966년 10월에 불국사 석가탑 2층 塔身 舍利孔에 안치되어 있던 사리함 속에서 卷子本으로 발견되었고, ‘이 경전에는 武周制字가 섞여있고, 경덕왕 때에 조성된 것이라 하여, 적어도 ‘951년 이전’에 인쇄된 世界最初(世界最古)의 목판인쇄본(圖書)이 발견되었다’⁴³⁾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⁴⁴⁾ 「무구정광경」 관련 연구 상황은 <표 9>와 같다.

<표 9> 「無垢淨光大陀羅尼經」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한국 목판인쇄의 기원년대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10집	1994.12	425-478
2. 한국 인쇄문화의 始原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13집	1997.6	1-46
3.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김성수	제14집	1997.12	43-73
4. 「無垢淨光經」의 刊行과 關聯한 몇 가지 論證	김성수	제16집	1998.12	157-181
5. 新羅 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 問題	천혜봉	제18집	1999.12	115-142
6.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韓國 印刷文化의 起源年代 研究	김성수	제19집	2006.6	403-501
7. 석가탑 『無垢淨經』의 陀羅尼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20집	2000.12	299-323
8. 遼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研究	유부현	제20집	2000.12	7-23
9.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서체의 연원	김수천	제21집	2001.6	159-188
10. 『無垢淨光經』의 刊行에 관한 中國측 反論에 대한 批判	김성수	제25집	2003.6	477-506
11.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傳入與否攷』의 補篇 - 唐·遼代 房山本·新羅 『花嚴寫經』을 中心으로	심우준	제25집	2003.6	5-16
12. 佛國寺 釋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年과 刊地에 대한 小考	양계봉	제29집	2004.12	499-510
13. 慶州九黃里 皇福寺 石塔藏 「無垢淨光大陀羅尼經」 ‘銘文’과 實物	심우준	제29집	2004.12	5-13
14.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재검증 연구	김성수	제36집	2007.6	39-79
15. 통일신라시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서체 연구	정현숙	제40집	2008.9	47-72
16. 석가탑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41집	2008.12	41-66
17.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송일기	제42집	2009.6	47-73
18.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 〈무구정광다라니〉의 서지적 연구	정경재 박부자	제65집	2016.3	149-181

(南明法泉)의 주석서(1248)’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절집안의 관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世俗의 서지학과 중세국어학계 등에서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한글로 표기할 때 ‘남명천화상송증도가’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서지학계 등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法泉’의 한글표기에 관한 통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陀羅尼’를 ‘다라니’로, ‘十方’을 ‘시방’으로, ‘道場’을 ‘도량’으로 읽고 표기하는 등의 불교계의 현실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禪家의 관습 및 관행은 서지학계에서나 중세국어학계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동아일보』, 1966.10.15.(土), 제1면. 『조선일보』, 1966.10.16.(日), 제7면. 참조.

44) 석가탑에서 발견된 일괄유물 총28점은 1967년 9월에 ‘국보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첫째,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구정광경」에 관한 연구는 ‘한국 목판인쇄의 起源年代’(1994.12)를 비롯하여,⁴⁵⁾ 제65집까지 18편의 관련논문이 게재되었다.⁴⁶⁾ 이들 논문의 세부주제 중 ‘석가탑 「무구정광경」의 간행 장소·시기’ 및 이 경전의 ‘인쇄된 종이의 지질(紙質) 및 그 書體’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무구정광경」은 신라의 닥나무(楮) 종이를 ‘홀림뜨기’로 떠서, 7세기 초기 당시 신라의 서체로 목판이 제작되고, 706~742년 사이에 新羅 경주 지역에서 인쇄된, 현존하는 世界最古의 목판인쇄도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⁴⁷⁾

둘째, <표 9>의 연구에서는 ‘화엄사 서오층탑 발견 「무구정광경」’(2016.3)과 ‘경주 황복사 石塔藏 「무구정광경」’(2004.12) 및 ‘거란(遼)본 「무구정광경」’(2002.12)과 같은 연구도 수반되어, 「무구정광경」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성과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무구정광경」은 대표적인 신라의 밀교경전으로 지목되지만, 한국서지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이 경전에 관한 주된 관심은 ‘세계인쇄문화의 起源’과 관련하여 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구정광경」의 간행과 관련하여 위 18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이 경전의 간행과 관련한 간행 장소·시기 및 특징 등에 관한 총체적인 마무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구정광경」이 야말로 세계인쇄문화의 起源을 이룩한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임을 총정리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또한 「무구정광경」에 대하여 불교학적인 관점으로 조망한다면, 향후 한국서지학에서 「무구정광경」에 대한 밀교경전으로서의 원문서지학적인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2 「直指」 관련 연구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직지」를 인쇄한 ‘淸州牧 興德寺’의 위치를 20세기 후기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1985년에 興德寺址가 발굴되었다. 그리하여 「직지」는 현존하는 世界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면서, 2001년 9월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직지」 관련 인쇄문화의 연구현황은 <표 10>과 같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를 인쇄한 이른바 ‘興德寺字’의 鑄造方法은 천혜봉 교수에 의하여 ‘밀랍주조법’으로 주장되었고,⁴⁸⁾ 이 학설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5) 위의 연구 등에서는, 한국(新羅)에서 「무구정광경」 간행의 上·下限 년대는 ‘706~722년’으로 입증하고, 이 경전이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목판인쇄본임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유네스코(UNESCO)의 인증 및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46) 위의 논문들이 연구·게재되는 사이의 시기인 2007년 3월에, 「무구정광경」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석가탑 사리함 속에 있었던 墨書紙片(석가탑 重修記)이 해체·복원·解讀되면서, 석가탑의 造成年代는 ‘742년 무렵’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47) 그밖에 이 경전의 간행과 관련한 ‘중국측 반론에 대한 비판’(2003.6) 등은 ‘印刷術의 始原’과 관련한 한·중 양국간의 주장과 그 차이에 대한 관점 등을 비교할 수 있다

48) 천혜봉 교수는 「직지」 인쇄면의 특징 중에서 이른바 ‘한 版에 같은 글자의 동일한 字形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편,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지」를 인쇄한 금속활자(興德寺字)로 「자비도량참법집해」도 인쇄하였다(1991.12)라는 연구도 본 학회지에 게재⁴⁹⁾됨으로써, 興德寺字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표 10>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直指」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興德寺字로 찍은『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 새로 발견된 覆刻本의 卷首事項을 중심으로	남권희	제7집	1991.12	3-31
2. 高麗 金屬活字本 『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的 意味	박문열	제17집	1999.6	125-154
3. 『金泥石屑』 千佛銅牌에 관한 연구	한미경	제21집	2001.6	189-213
4. 「직지」의 의미 / Eva-Maria Hanebutt-Benz	Benz	제28집	2004.9	171-178
5. 「직지」와 금속활자의 아름다움 - 조선전기 금속활자를 통하여 살펴본 선조의 미의식	옥영정	제28집	2004.9	137-169
6.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조선 초기 활자인쇄 문화	이희재	제28집	2004.9	99-136
7. 「直指」와 佛教文化	강순애	제28집	2004.9	73-98
8. 「直指」와 금속활자 인쇄의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朝鮮初期 금속활자 간행도서의 주제 분석	김성수	제28집	2004.9	33-71
9.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에 관한 序說	박문열	제28집	2004.9	5-32
10. 興德寺本 「直指」의 서체미에 관한 연구	김수천	제29집	2004.12	277-309
11. 高麗時代 金屬活字의 發明과 「直指」活字 鑄造方法	황정하	제32집	2005.12	481-511
12.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 조사 연구	남권희 김성수 이승철 임인호	제35집	2006.12	59-81
13. 「직지」에 사용된 활자와 조판에 대한 분석 연구	이승철	제38집	2007.12	377-411
14. 「直指」의 字跡에 나타난 直指活字의 特徵 研究	조형진	제38집	2007.12	163-192
15. 직지활자의 구조 조판에 관한 연구	조형진	제39집	2008.6	69-86
16. 한국 금속활자 시원의 원천기술 및 흥덕사자 구조법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54집	2013.6	75-102
17. 「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김성수	제55집	2013.9	183-225
18. 「직지」의 인쇄상태 분석에 입각한 興德寺字의 구조형태에 관한 고찰	김성수	제56집	2013.12	43-79
19. 「직지」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변증	김성수	제57집	2014.3	83-119
20.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에 관한 동서양의 비교 연구	김성수	제60집	2014.12	37-69
21.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復原을 위한 組版 및 印出 實驗 研究	조형진	제68집	2016.12	451-496
22. 콜랭 드 플랑시와 「直指」의 改裝 - BULAC 所藏 韓國古典籍을 中心으로	이선희	제68집	2016.12	309-348
23. 「直指」중 「黃蘗希運」條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분석	김성수	제68집	2016.12	35-62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직지」를 인쇄한 금속활자(興德寺字)의 구조방법은 「밀랍구조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218.).

49) 즉 「목판본 「자비도량참법집해」」 중에 흥덕사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을 번각(飜刻)한 목판본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였다는 의미이다.

<표 10>에 의하면, 「서지학연구」 제7집(1991)부터 제29집(2004)까지는 금속활자 인쇄문화를 비롯한 소위 <직지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둘째, 2006년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直指」原本을 직접出張調査한 결과의 논문(2006.12)이 발표된 이후, 「직지」를 인쇄한 활자와 조판에 관한 연구 등(2007.12, 2008.6)이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 금속활자 시원의 원천기술 및 흥덕사자 주조법’(2013.6)에서는 ‘1377년에 「직지」를 인쇄한 금속활자(興德寺字)는, 밀랍주조법이 아닌, 주물사주조법으로 주조된 활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지」의 인쇄상태 분석에 입각한 興德寺字의 주조형태」(2013.12)에서 ‘癸未字印本과 「직지」의 인쇄상태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고려 네다리활자’와 興德寺字 및 계미자의 주조 형태는 서로 類似함과 동시에 그 차례로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興德寺字의 주조방법은 주물사주조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學說이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와 관련한 서지학적 연구는, 주로 古代 금속활자의 주조법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興德寺字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그 주조법이 ‘밀랍주조법’이라고 추정되었으나, 「서지학연구」 제32집(2005.12) 이후,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여 ‘興德寺字는 주물사주조법에 의하여 금속활자가 鑄成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擡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興德寺字의 鑄造法에 관한 학설이 再正立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셋째, <표 10>의 후미에는, 「직지」와 관련한 내용서지 및 원문서지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직지」의 핵심 내용인 ‘無心’에 관한 연구가 ‘3편’(2013.9, 2014.3, 2016.12) 제시되고 있다. 향후 「백운화상어록」 등과 비교서지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無心禪’에 관한 서지학적·불교학적인 연구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불교학에서의 계승 연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4.3 「南明頌證道歌」 관련 연구

종래 서지학계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는 「직지」를 인쇄한 興德寺字로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현존하는 「南明頌證道歌(完全書名: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崔怡가 高麗에서 기존의 금속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책을 해체하여, 이를 1239년에 木板鑿刻本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러한 「남명송증도가」를 처음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實物인 證道歌字와, 고려 금속활자의 일환이라 판단되는 ‘고려 네다리형 활자’가 포함된 101개의 금속활자가 2010년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리하여 證道歌字는 「남명송증도가」 번각본 글자와 금속활자의 字樣 및 書體가 일치하고, 이들 활자 일부의 글자면 사이에 남아있는 먹(墨)의 방사선탄소연대측정에서 ‘1211년’을 전후한 시기로 규명하는 등 여러 학술적·과학적·형태적 증거에 입각하여,⁵¹⁾ 2010년

50) 그러다가 「「직지」 활자 주조방법」(2015.12)에서 주물사주조법으로도 소위 [한 版 내에서] 어미자가 다르면 同一한 글자의 字跡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9월에 공개된 ‘증도가자와 고려금속활자’는 眞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證道歌字에 대한 『書誌學研究』에서 발표된 논문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관련 연구현황

논문명	저자명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1.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에 관한 분석	김성수	제47집	2010.12	169-198
2. 증도가자와 『동국이상국집』	남권희	제48집	2011.6	191-228
3. 한국 금속활자 연구의 제문제	남권희	제51집	2012.6	55-96
4. 2012년까지 소개된 高麗金屬活字의 實物과 僞作에 대하여	유부현	제54집	2013.6	167-197
5. 금속활자본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감별 방법 연구	조형진	제63집	2015.9	91-117
6. 증도가자와 ‘고려 네다리형활자’의 연구현황 및 그 가치	김성수	제63집	2015.9	35-62
7.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성과	남권희	제64집	2015.12	5-47

위 <표 11>에 제시된 7편의 논문은, 고려금속활자가 공개된 이후, 첫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 분석(2010.12)과 ‘증도가자와 ‘고려 네다리형 활자’의 연구현황 및 그 가치’(2015.9)에서는⁵²⁾ 이들 활자에 대한 진일보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둘째, ‘증도가자와 『동국이상국집』’(2011.6)에서는, 목판본 『동국이상국집』 중에서 그 일부는 증도가자의 금속활자본을 鑿刻하여 인출한 번각본임을 입증하였다.⁵³⁾⁵⁴⁾ 위와 같은 연구 등⁵⁵⁾의 결과에서, 證道歌字는 鑄物沙鑄造法(沙型鑄造法)에 의한 特異하고도 독특한 鑄造 형태임이 파악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 주조법의 변화·발전의 양상을 규명하는 등 證道歌字와 ‘고려 네다리형 활자’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셋째, 201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 유포되었던 증도가자와 위조된 활자들에 대하여 ‘2012년까지 소개된 高麗金屬活字의 實物과 僞作’(2013.6)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⁵⁶⁾ 또한 ‘금속활자본설

51) 남권희, 『증도가자와 고려시대 금속활자』(서울: 다보성고미술, 2011). 참고.
 52) 同年에 『書誌學報』에 ① ‘김성수, “증도가자의 진위 규명을 위한 조선시대 금속활자와의 주조형태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6號(2010. 12), 85-118.’, ②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인쇄술의 始原과 관련한 주자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년도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9號(2012. 6), 85-118.’을 발표하였다.
 53) 이 논문에 앞서 남권희는 『書誌學報』에 ① ‘남권희, “증도가자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書誌學報』 第36號(2010. 12), 5-84.’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② ‘남권희, “高麗 金屬活字 證道歌字의 鑄造法과 印刷技術史的 分析,” 『書誌學報』 第39號(2012. 6), 185-228.’을 게재하였다.
 54) 그밖에 ‘한국 금속활자 연구의 제문제’(2012.6)와 ③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성과’(2015.12)를 발표하면서, 증도가자에 대한 총정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55) 『書誌學報』 第39號(2012. 6)에서는 위의 각주들에서 언급한 김성수와 남권희의 논문 이외에, 이른바 <기획특집2: 논문>으로, ①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書誌學報』 第39號(2012. 6), 149-184. ② 이완우, “新出 金屬活字와 고려시대의 서예사,” 『書誌學報』 第39號(2012. 6), 229-272. ③ 이승철, “直指」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활자분류 비교,” 『書誌學報』 第39號(2012. 6), 303-344.’와 같은 연구들이 게재되었다.
 56) 證道歌字와 高麗金屬活字에 대한 眞僞를 가리고 판가름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僞作이 濔행함으로 인하여, 이미 공개된 증도가자의 국가문화재 지정의 문제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남명송증도가』의 감별 방법’(2015.9)⁵⁷⁾도 論究되었다.

이상 <표 11>에 제시된 證道歌字와 고려금속활자에 대한 7편의 논문에서는, 그동안 10여년 이상에 걸쳐 연구된 고려금속활자 實物에 형태서지학 및 과학적인 연구 성과는 21세기의 한국서지학계의 인쇄문화사적 연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분석된다.

근래에, 위와 같은 證道歌字(高麗金屬活字)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었다.⁵⁸⁾ 이 사항은 學問的 연구와는 상관없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논술을 삼간다.

5. 結 論

이상의 본론에서는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9)부터 제70집(2017.6)까지에 게재된 총 229편의 佛敎書誌學 논문들을 1) 大藏經(初雕藏·再雕藏 및 諸宗教藏) 관련 연구, 2) 單位佛書(佛經·寫經·禪書·密敎 其他佛書 및 寺刹本) 관련 연구, 3)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無垢淨光經』·『直指』·『南明頌證道歌』) 분야로 3大別하고, 그 연구동향을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大藏經 관련 연구에서는 62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대장경과 관련한 41편의 논문 분석에서는, ① 『대장목록』과 『교정별록』을 비롯한 初雕藏과 再雕藏의 구성 및 편성체계, ② 고려대장경의 연구과제와 그 조성과정 및 開寶藏과의 관계, ③ 고려대장경의 판각·교감·피휘 등의 문제, ④ 분사대장도감의 문제, ⑤ 거란(遼)과 고려의 불교문헌의 교류 문제, ⑥ 일본 南禪寺 소장 鎮兵大藏經 印本에 대한 조사 등등이 연구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고려대장경과 관련한 서지학적인 基盤研究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탄탄하게 이루었다고 분석되었다. 향후에는 더욱 세부적인 주제와 관점에서의 微視的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展望하였다.

2) 諸宗教藏 및 『교장총록』과 관련한 21편의 연구에서는, 제종교장의 수집에서부터 『교장총록』의 편성체계 등이 완벽하고, ‘제종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 및 그 ‘章疏의 書名에 관한 연구’와 ‘제종교장 문헌연구 방법론의 접근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제종교장과 『교장총록』에 관한 연구 성과가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제종교장 관련 연구는 향후의 연구들도 주목됨을 전망하였다.

57) 이 논문은, 이른바 ‘목판변각본 『남명송증도가』’를 금속활자본으로 誤認하고, 이 책이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에 대한 敎定이라 볼 수 있다.

58) 그 사이의 時期인, 2015년 11월 14일(토)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 공동 발굴조사단>에 의하며, [북한]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금속활자 1字(‘嫻(전일할 전)’)가 출토·발굴됨으로써, “출토지가 명확한 [세계]최초의 금속 활자, 국가 주도로 만든 최고 수준의 활자”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무엇보다 證道歌字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眞實은, 행정적·정치적 처리와 相關없이, 학자의 순수한 양심과 연구의 嚴正性·完全性·科學性에 의하여 기필코 具顯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에서는 單位佛書이라는 大主題 아래에 ‘佛經·寫經·寺刹刊行本·禪書·密教經典·其他佛書’ 등의 세부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연구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佛經 관련 연구 32편의 논문에서는, 주로 해당 개개 불경에 대한 ‘판본·底本·校勘’ 등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원문서지학(校讎學·校勘學) 영역에서의 연구도 활발하여, 개개 불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 正體性을 밝혀주는 연구에 주력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 분야 연구는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寫經 관련 연구에서는 19편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연구에서는 ‘사경의 표지 및 변상화’ 등의 형태서지학적 특징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 우선적으로 치중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사경의 發願者·財施者 및 조성년대의 문제’와 ‘변상화의 양식 및 내용 분석’ 등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寫經 관련 연구는, 서지학 분야 연구영역의 外延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3) 寺刹刊行本 관련 연구는 21편에 이르고 있으며, ‘歷代로 佛書刊行으로 유명하였던 사찰 및 최근에 佛書들이 많이 발굴된 단위 사찰’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된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대별·지역별 불서 간행’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여, 불서 간행의 여러 현상들을 보다 광범위하고 거시적으로 연구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4) 禪書 관련 연구는 17편이나 고찰되면서, 그 대상의 禪書는 지눌의 찬술선서·「선가귀감」·「대혜보각선사서(書狀)」·「고봉화상선요(禪要)」·「종경록」·「인천안목」·「심법요초」·「선문염송」·「벽암록」·『四法語』·「몽산화상법어약록」·「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節要)」·「법보단경」 등 무려 13종 이상의 禪書에 대한 다양한 서지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都序」를 비롯한 「禪宗永嘉集」·「증도가」·「전등록」 등 한국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많은 禪書들이 아직도 그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한국서지학계에서는 이러한 禪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되었다. 왜냐하면, 특정 禪書 등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과 서지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불교문헌의 편찬과 간행 등에 관한 한층 더 심화된 연구 성과를 導出할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서지학이 불교학에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명백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密教經典 관련 연구는 단 8편에 불과하나, 그 연구의 성과는 至大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고려·조선 시대 밀교경전의 全貌 파악뿐 아니라 密教儀式 腹藏典籍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주목되었다. 향후 서지학계에서는 이러한 密教經典類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다.

6) 其他佛書 관련 연구에서는 22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들 논문에서는 「三家龜鑑」·「月印釋譜」·사찰 講院教材·불교문헌의 口訣·〈해인사 事蹟〉·「佛氏雜辨」·「中禮文」·「水陸齋儀撮要」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된 결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여러 연구 방법으로 그 성과를 導出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제4장에서는 한국인쇄문화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無垢淨光經」·「直指」·「南明頌證道歌」와 관련한 연구들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1) 「무구정광경」 관련 연구에서는 18편의 논문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無垢淨光經」은 신라의 다나무(楮) 종이를 ‘홀림뜨기’로 떠서, 7세기 초기 당시 신라의 書體로 목판이 제작되고, 706~742년 사이에 新羅 경주 지역에서 인쇄된, 현존하는 世界最古(世界最初)의 목판인쇄 도서’임이 입증되었다. 향후 「무구정광경」이야말로 세계인쇄문화의 起源을 이룩한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임을 총정리 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도 확인하였다.

2) 「直指」 관련 연구에서는 23편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와 관련한 서지학적 연구는, 주로 古代 금속활자의 구조법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즉, 興德寺字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그 구조법이 ‘밑답구조법’이라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서지학연구」 제32집(2005.12) 이후 一連의 연구에서는 ‘興德寺字는 鑄物沙鑄造法(沙型鑄造法)에 의하여 금속활자가 鑄成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그 학설이 재정립되고 있는 과정을 밝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證道歌字와 ‘고려 네다리형 활자’인 금속활자 實物 즉, ‘高麗金屬活字 101개’가 2010년 9月初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高麗金屬活字는 「남명송증도가」 번각본의 인쇄된 글자(글씨체)와 금속활자의 字樣 및 書體가 일치하고, 이들 활자 일부의 글자면 사이에 남아있는 먹(墨)의 방사선탄소연대측정에서 ‘1211년’을 전후한 시기로 규명하는 등 여러 학술적·과학적·형태적 증거에 입각하여, 공개된 금속활자들이 ‘증도가자와 고려금속활자’는 眞品임이 주장되었다. 위와 같은 高麗金屬活字와 관련한 7편의 논문은, 證道歌字 및 ‘고려 네다리형 활자’에 대한 다각도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고려금속활자에 관한 正體性和 眞品性を 밝혀주는 연구라고 분석되었다.

요컨대, 「書誌學研究」에 게재된 229편의 불교서지학 논문들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면, ① 창간호(1986)부터 20세기말까지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한국서지학에서 개괄적이고 필수적인 佛書 및 대장경 관련 연구부터 먼저 시도되면서 불교서지학의 地평을 차츰 넓혀 나갔다’고 분석되었다. ② 21세기 이후의 학회지의 중·후기 연구에서는 ‘개개 佛經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佛經의 口訣·寫經·寺刹 刊行本·禪書·密教經典’ 등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③ 「無垢淨光經」·「直指」·「南明頌證道歌」에 입각한 ‘한국 및 세계의 목판인쇄와 금속활자인쇄 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직지」와 「남명송증도가」를 인쇄한 금속활자 각각의 鑄造法 및 그 正體性 등 서지학 本然의 연구도 매진함으로써, 한국서지학계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서지학회. 『書誌學研究』 제1집(1986) ~ 제70집(2017.6). <한국서지학회> 학회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주관책임연구원: 남권희)』. 대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고려대장경연구소.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2010~20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 김성수. “증도가자의 진위 규명을 위한 조선시대 금속활자와의 구조형태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6號(2010. 12). 85-118.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 (2012. 2). 263-268.
-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인쇄술의 始原과 관련한 주자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년도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第39號(2012. 6). 85-118.
- 남권희. “증도가자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書誌學報』 第36號(2010. 12). 5-84.
- 남권희. 『증도가자와 고려시대 금속활자』. 서울: 다보성고미술, 2011.
- 남권희. “高麗 金屬活字 證道歌字의 鑄造法과 印刷技術史的 分析.” 『書誌學報』 第39號(2012. 6). 185-228.
- 문화재청.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세종: 문화재청, 2016.12.
-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書誌學報』 第39號(2012. 6). 149-184.
-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 천혜봉.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解說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 한미경. “『書誌學研究』의 연구동향 분석.”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3). 119-148.